

불교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상징하는 부처님상을 모시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대림정사터를 참배하고 있다.

‘위대한 열반’ 시작된 길을 따라 걷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③ 부다가야서 바이샬리까지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안거를 위해 바이샬리 인근의 벨루와라는 마을로 가셨다. 대나무숲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죽림촌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부처님은 마지막 안거를 보내셨다. 안거가 끝나자 부처님은 바이샬리에 있던 대중들을 모아 놓고 ‘3개월 후 열반에 들리라’ 고 선언하시며 그 자리에서 계정혜 삼학을 닦을 것을 당부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자등명 법등명’ (自燈明 法燈明)을 설하셨다. 이는 중생과 세상을 구제한 부처님 자신에게조차도 귀의하지 말고 그 진리에 귀의하라는 열반의 실질적인 법문이다.

3주차로 접어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의 후대를 위한 가르침이 절실히 새겨진 곳, 부처님이 위대한 열반의 여정 중 가장 중요한 곳, ‘바이샬리’ 를 향해 나아갔다.

현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라 걷고 있다. 특히 라지기르부터 바이샬리를 거쳐 오는 3월 8일 쿠시나가르까지 가는 여정은 ‘위대한 열반’ , ‘완전한 열반’ 으로 일컬어지는 그 여정과 닿아 있다.

21일차인 3월 1일에 도착한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안거를 보내신 곳이고, 3개월 후 열반하실 것을 말씀하신 곳이며,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설하신 곳이며, 여성 출가를 허락하신 곳이자, 삼처전심 다자탑전분반좌의 가르침과 유마경의 설법지, 근본사리탑 8개 중 1개가 있고, 부처님 입멸 후 100년 후 제2결집이 이뤄진 곳이다.

진리에 의지하며 정진하다

‘자등명 법등명’ 가르침이 서려있는 곳에서 순례단은 불법(佛法)을 등불로 삼아 정진했다. 법 앞에 부처님 자신조차 귀의처가 아닌 가르침에 개개인의 존귀함을 따르고 수행공동체로서 의식을 함께 나누며 정진하고 있다.

순례단의 스승인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을 지원하며 궂은 일을 하는 운영지원단의 스태프들도, 취재하는 기자와 안내하는 경찰들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며, 법에 의지해 자신의 자리에서 정진하고 있다.

회주 스님은 대중이 함께 세운 청규를 지키기 위해 숙소에 갈 때까지 빨래를 하지 않고, 순례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한다. 순례단 개개인은 행여 다른 이들의 행선에 방해가 될까 걸음이 힘들어도, 열조차 흐트러뜨리는 것을 경계한다. 새벽 2시, 도량석과 종송 소리에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5kg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운하기에 힘든 작은 부처님도 서로가 나눠 이운한다. 부처님이 특정인이 아닌 ‘진리’ 인 법에 귀의하라는 그 가르침을 오롯이 이어가기 때문이다.

행선에서 비구니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날 부처님 이운은 비구니 스님들이 나눠 진행했다. 오히려 비구니 스님들은 ‘여성’ 이라는 별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비구니조인 6조 조장 묘수 스님은 “비구니라고 해서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부처님 제자로 비구와 비구니, 우바이와 우바새는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3조 조장 법원 스님도 “부처님께서 회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들리시며 하신 ‘어떻게 불자들이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 에 대한 가르침을 걸음마다 화두로 삼았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부처님을 이운한 재가불자를 대표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본분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다. 회주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본분에 충실하면 그 것이 불교중흥”이라고 했다.

3월 1일 순례의 회향은 부처님께서 열반 후 8등분 된 사리를 바이샬리의 리차비족이 봉안한 근본사리탑터에서 진행됐다.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 그 숭고한 불법이 현재 전해지지 않는 인도에서 부처님이 남긴 사리는 파트나 박물관에 유물로 있고, 근본사리탑터는 기단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날 순례에 대해 순례단장 원명 스님은 “최후의 안거를 하시고 마지막 열반지를 향해 나아가신 바이샬리에 도착한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서 비구니 교단이 형성되기도 하고,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유마거사가 등장했듯이 출가자 일부만의 법이 아닌 사부대중의 법으로 불교가 이제는 다함께 고민하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인도불교처럼 한국불교가 사라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상월결사 정신에 담긴 함께 불교를 걱정하고, 함께 전법 포교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종호 스님이 회향지에서 부처님 전에 올린 발원문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담아 처절한 반성과 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회주 자승 비구를 비롯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순례대중은 발원하옵니다. 쇠잔해가는 불법이 중흥하도록 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의지처이자 나침반이 되도록 하옵소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보드가야, 영축산을 거쳐 400여 km를 걸어 이 곳 바이샬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불법의 중흥은 세상을 이익되게 함에 있고, 우리 모두의 이타 실천행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지이다. 온 세상이 투쟁과 갈등, 다툼과 불화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 순례 21일째로 순례단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고 기운내어 환희롭게 이 순례를 잘 회향하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 천민에게 부처님 가피는 ‘교육’

부다가야에서 바이샬리로 가는 여정에서 순례단은 한국불교가 인도를 변화시키는 현장도 목도했다. 바로 2월 23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다. 이날 순례단은 아침공양을 위해 이른 새벽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머물렀다.

1994년 2월 마을 주민들이 땅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JTS에서 건축비를 지원하여 불사를 시작한 수자타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부처님 성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인도의 여러 마을 중 가장 좋지 않은 쓸모 없는 땅을 기부받으니 그 곳이 부처님의 흔적이 남은 전정각산에 자리하게 됐다.

전과정이 무료인 수자타 아카데미는 영어와 수학 등 기초교육을 담당한다. 처음에는 120명의 불가촉천민 학생으로 학교를 시작했지만 29년이 흘러 어느덧 1000여명의 학생들이 문맹 극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순례단의 방문에 앞서 총책임자인 보광 법사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전정각산을 중심으로 15개 마을에서 저희가 마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옛날 부처님께서 수자타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으셨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29주년이 된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현재 6명의 한국 활동가가 살고 있다. 한국에서 머나먼 곳이지만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일념 하나로 이 곳 주민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는 불교가 표방하는 차별없는 세상, 모든 생명이 존귀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화장실 청소다. 인도인들에게는 화장실은 매우 더러운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화장실을 청소하기 보다는 화장실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들판에서 용변을 보곤 한다. 학교가 커지다 보니 여러 계급 아이들이 섞이게 됐고, 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의 경우 불가촉천민 아이들이 맡을 수 밖에 없었다.

보광 법사는 “브라만 계급인 교장 선생님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이후에 학교 선생님을 시작으로 차례로 순번을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주번을 정해 한국학교처럼 아이들이 나눠 청소한다. 자연스럽게 계급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 심어진 망고나무의 망고를 수확하는 날에는 전교생들이 함께 이를 맛본다고도 했다.

교직에 있던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는 정동표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삶이 행복하다. 정부 인가학교지만 여기 아이들 중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원하는 아이들은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립학교에서 35년간 교직에 임한 정충래 순례단 8조 조장(동국대 이사)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결국 이 불가촉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근본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민들에게는 부처님 가피가 바로 교육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순례단 공양시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둘러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종단이 못하는 일을 법륜 스님이 한다”고 이들의 활동을 치하하기도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선두에서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부처님의 뒤로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자등명 법등명 설법의 장소

여성출가, 재가법사 상징터

바이샬리 가는 3주차 여정

따뜻한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한걸음 한걸음 정진 또 정진

수자타 아카데미, 날란다大

교육의 중요성 새삼 깨달아



순례단이 나바 날란다대학을 뒤로 행선에 나서고 있다. 인도 국영 나바 날란다대학은 1951년 날란다대학터 인근에 세워졌다.



순례단의 부처님상을 안고가는 비구니 스님들의 미소가 자애롭다.



자승 스님이 인도 마을 주민들에게 염주와 단주 등을 전하고 있다.

날란다 대학서 求法 원력 새기다

3주차 순례에는 구법(求法)의 상징과 같은 성지를 찾아가는 여정도 있었다. 바로 날란다 대학이다.

지혜의 상징인 ‘연꽃이 있는 곳’ 의 나란타(那爛陀)로 음사되는 인도 날란다대학은 불교학의 중심지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꿈의 장소였다. 수많은 구법승들이 이곳을 향해 길을 떠났다.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승려와 학자 등 1만여 명이 머물렀던 날란다 대학을 순례단이 찾았다.

2월 26일 라지기르의 숙소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약 16km를 걸어 ‘나바 날란다대학(Nava Nalanda Mahavihara)’ 에서 아침공양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아침공양은 ‘Ruin of Nalanda’ 로 표기되는 옛 날란다대학터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운영하는 ‘나바(新) 날란다대학’ 에서 순례단에게 특별히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 전날 공양장소가 변경됐다.

나바 날란다대학은 인도 초대 대통령 라젠드라 프라삿드 박사가 1951년 옛 날란다대학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발의하여 날란다대학터 옆에 세워졌다. 불교전문대학으로 다수의 석·박사 과정학생들이 인도 고대사와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나바 날란다대학에서 준비한 공양은 단촐했지만, 보여준 정성은 뜻깊었다. 강당을 비우고 비탑 학장과 교수들이 정문까지 나와 순례단을 맞이했다.

비탑 학장은 “한국에서 100여 스님과 재가자들이 직접 걸어 불교학 터전이었던 이곳에 방문하신 것은 최초”라며 “이 뜻깊은 순례에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법을 전하셨으며,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평생 길을 걸으신 부처님은 아난에게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러야 한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러야 한다”는 지금의 불교를 있게 한 위대한 설법을 하셨다. 3주차의 순례는 그 위대한 설법을 되짚어 보는 여정이었다.

‘자등명 법등명!’